

- (ii) 흡연시작연령은 20~24세군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5~19세군과 30~34세 군이었다.
- (iii) 1일흡연량은 평균 10개피였다.
- (iv) 흡연기간은 20~30년이 2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20년군 19.7%와 30~40년군 19.7%였다.
- c) 음주관계  
전혀 못하는 사람이 45.2%였으며, 음주자 중에는 약간 하는 사람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많은 량의 음주자가 12.8%였다. 매일 음주자도 1.6%(8명)이었다.
- d) 수면관계  
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잘한다고 하였다. 수면시간은 평균 7.22시간이었다. 수면 습관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59.0%로 가장 많았다.
- 4. 건강상태
  - a) 조사당시 이전 6개월 동안에 질병이환율은 37.6%였다.
  - b) 상병 계속일수는 4일만이 39.4%로 가장 많았다.
  - c) 병의원치료가 60.2%였다.
  - d) 질병의 종류는 신경계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소화기가 21.2%, 순환기가 11.3%, 종합진단이 11.2% 등의 순이다.
  - e) 1만원 미만의 의료비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1~4만원군이 29.6%로 다음이었다.
  - f) 질환자중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8.2%였다.
  - g) 입원기간은 10~19일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29일군이 25.2%, 5~9일군이 20.0%였다.

## 일부 도시 모성의 모자보건 지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

춘천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8집, pp. 217~247, 1978.

주 채 복

1978년 10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35일간 춘천시 보건소모자보건실에 등록된 영유아중 무작위 추출한 250명을 대상으로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과 지식에 대한 실천상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바른지식을 가진율도 높았으나 실천율에 있어서는 경제정도 상위층에서 높았다.
2. 일반적으로 지식보다 실천율이 낮은 경향이다.
3. 예방접종 장소는 대부분이 보건소였으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한 지식과 실천율도 높았다.
4. 분만장소는 의료기관보다 가정분만이 높았으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가정 분만율이 높았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의료기관내 분만율이 높았다.
5. 이유식품으로 가장 좋다고 응답한 것은 우유였으나 실제 많이 이용한 식품은 과일류였다.
6. 태출의 처리에 대해 바른지식과 실천 모두가 30~34세군에서 가장 높았고 경제정도 및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소독된 기구의 사용율이 높았다.
7. 이상적 이유시기는 경제정도와 무관하였고 50세이상군에서 지식과 실천의 차이가 가장 좁고 30~34세군에서 가장 차이가 컸다.

## 일부 농촌지역의 의료방법에 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간호학회지, Vol. 8, No. 2, pp. 25~37, 1978.

최 남 희

### 1. 결론

- 1) 총 139명의 응답자 중 대부분이 질병치료와 관련해서 의사와 약국의 기능을 인정했고, 무속적인 방법을 지지하는 경우는 단 1명이었다.
- 2)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것은 의사의 진료였고, 다음이 약국이었다. 한방의료는 민속요법보다 높은 신뢰를 받았으나, 실제사용에서는 민속요법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어느정도 의료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상당한 정도의 의료수요자들은 의사와 약국을 이용하는 한편으로 한방의료 및 민속요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편 무속적 경향을 갖는 보건의식에 따른 형태는 매우 미약했다.
- 4)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전통의료는 무속적인 방법과 분명히 구분되어 판단되며 합리적 사고 속에서 전통의료는 현대의료와 공존하고 있다.
- 5) 상병자별 의료수단의 이용은 의사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37.9%), 약국이 그다음이며, 민속요법의 사용보다는 한방요법의 사용이 많았다.